

보도	2023.11.6.(월) 10:00	배포	2023.11.6.(월)		
담당 부서	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	책임자	국장	윤정숙	(02-3145-7700)
		담당자	팀장	문정호	(02-3145-7702)

##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최

### 1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요

-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3.11.6.(월) 국내 9개 회계법인 CEO와 간담회를 개최
  - 이번 간담회는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'22.9월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지는 간담회로,
  -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고, 회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

#### 회계법인 CEO 간담회 개요

■ 일시 : '23.11.6.(월) 10:00~11:00

■ 장소 :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(2F)

#### ■ 주요 참석자

- (금융감독원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장석일 전문심의위원
- (유관기관)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, 이한상 한국회계기준원장
- (회계법인)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,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,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,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, 한울회계법인 신성섭 대표,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, 이촌회계법인 김명진 대표, 안진회계법인 장수재 본부장\* 삼덕회계법인 손호근 품질관리실장\* 등 9명

\* 홍종성 대표(안진), 김명철 대표(삼덕) 대신 참석

## 2 금융감독원장 발언 요지

- 이복현 원장은 新외감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,
  - 앞으로도 회계산업이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사항을 당부하였음
- 첫째, 회계법인이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음
  - 감사인 지정제도로 인해 시장의 경쟁은 저하되었지만 감사 품질과 관련한 시장의 요구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,
  - 앞으로는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도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인 만큼, 감사역량 강화에 힘써 줄 것을 강조하였음
- 둘째, 공인회계사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회계법인 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  -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정행위는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,
  - 회계법인 소속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음
- 셋째, 국내외 감사환경 변화로 국내 회계법인의 디지털 전환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,
  -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디지털 감사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·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

- 넷째, 회계법인의 높아진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합리적인 감사업무 관행을 정착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,
  - 금융감독원과 4대 회계법인이 마련한 「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\*」의 이행 노력이 회계업계 전체로 확산될 필요성을 언급하였음
- \* <주요내용>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,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 등('23.10.18. 발표)
- 마지막으로,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비율 적정화 등 '회계제도 보완방안'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
  - 新외감법 안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음

### 3 주요 논의내용

- 이복현 원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이 회계감독 관련 주요 현안 추진현황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하였고,
  - 유관기관 및 회계법인 참석자들의 건의사항 및 현안 관련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있었음
  -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,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일 논의된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감독업무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음

#### (별첨)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1부

👉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s://www.fss.or.kr>)